

# 濟州島의 佛跡

姜 彰 彦\*

## 目 次

- I. 序 論
- II. 佛跡調査現況
- III. 佛 像
- IV. 佛塔과 浮都
- V. 器 皿
- VI. 기 와
- VII. 佛跡의 編年
- VIII. 結 論

## I. 序 論

濟州島의 불교 연구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島入된 時期라든가 經路에 대하여 분명치 못 하다. 性格, 分布, 種類 등도 확인이 안되고 있다. 文獻에 의한 사찰의 수도 20여곳에 이르고 있으나 濟州島의 불교에 관한 설은 統一新羅時代に 드러왔다는 설, 蒙古에서 島入되었다는 설, 元의 濟州를 지배할 때 收入되었다는 설, 高麗時代 정도에 들어왔다는 설 등 제시하는 것마다 틀리다.

\* 濟州大學校博物館

本稿에서는 濟州島 안에 散布되어 있는 佛跡들을 우선 把握하고 이를 기본 자료로 하여 濟州島 불교의 一面을 알아 보고자 한다.

## II. 佛跡調查現況

濟州島의 佛跡에 대한 調査는 1975년 濟州大學의 梁重海 教授에 의하여 처음으로 水精寺址가 밝혀졌다.<sup>1)</sup> 1983년에는 明知大學校博物館에 의하여 法華寺址가 調査 되었다.<sup>2)</sup> 또한, 1987.1991년에는 濟州大學校博物館에 의하여 法華寺址 金堂址와 周邊을 發掘되었다.<sup>3)</sup> 1988년에는 濟州大學校博物館에 의하여 水精寺址와 元堂寺址가 調査 報告되었다.<sup>4)</sup> 이는 濟州島의 佛跡 중에서 겨우 3곳에 이르는 것이고, 法華寺址 말고는 地表調査를 실시한 후 發掘調査가 이뤄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확한 性格마저 把握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筆者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조사하여 둔 것을 土臺로 하여 濟州島의 佛跡을 정리하여 두리로 하였다. 여기에는 1985.1986.1988.1991년의 法華寺址, 水精寺址, 元堂寺址의 공동조사와 1990~1991까지 「月刊濟州」에 실렸던 30여곳 佛跡과 조사가 되었거나 진행중인 것도 포함하여 補完하였다. 그리고 불분명한 것과 아직까지 확인 안된 佛跡도 일단 기록하여 두기로 하였다.

### 1. 法華寺址

西歸浦市 중문동 하원리에 있다. 1983년부터 발굴조사되기 시작하여 현재도 조사중에 있으며, 大雄殿이 復元되고 남순당이 지어져 있다. 주위의 과수원, 경작지, 논밭 등지에 다량의 기와, 도자기, 질그릇 등이 산포되어 있고, 遺構에 따르는 기단석, 주초석이 흩어져 있다.

1) 梁重海, "耽羅의 佛敎와 水精寺에 關한 研究", 《濟大學報》, 16號, 濟州大學, 1975, pp.44-74.

2) 明知大學博物館, 《法華寺址發掘調査報告書》, 西歸浦市, 1983.

3) 濟州大學校博物館, 《法華寺址簡略調査報告》, 法華寺, 1987.

4) 濟州大學校博物館, 《水精寺·元堂寺地表調査報告》, 耕信印刷社, 1988.

在縣東四十五里.僧慧日時法華庵畔物華幽曳竹揮松獨自遊苦問世間常住相梨花亂落水奔流.<sup>5)</sup>

在縣東四十五里今廢.<sup>6)</sup>

‘州境婢補二處修正寺見有奴婢一百三十口法華寺見有二百八十口…’<sup>7)</sup>

帖木兒曰濟州法華寺彌陀三尊元朝時良工所鑄也 某等當徑往取之…<sup>8)</sup>

議政府啓定濟州法華修正二寺奴婢之數啓曰據濟州牧使呈婢補二處修正寺見有奴婢一百三十口法華寺見有二百八十口乞將兩寺奴婢依他寺社例各給三十口餘三百八十二口屬典農從之.<sup>9)</sup>

法華寺 舊大靜邑을距하기東四十五里許(現今河原里境上)에在하였던바속에便히寺刹을設施하다.<sup>10)</sup>

大靜邑東八十軒許에在니今廢.<sup>11)</sup>

통일신라 해상무역왕 장보고에 의해 창건.<sup>12)</sup>

張保皋는 후일 濟州道 漢拏山 西麓에 法華寺를 創建한다.<sup>13)</sup>

高麗末 元宗 十四年(1273)四月에 本道에서 抗拒하던 三別抄 餘黨을 麗蒙聯合軍이 平定함에 同年 閏六月에 元은 達魯花赤提督府를 設置하고 南宋과 日本의 요행으로 보고 東方 侵略의 根據地로 한 후부터 本道는 元에 直屬되었고 元民의 移住가 많아져서 元의 佛敎가 들어와 四方에 寺刹과 神堂이 旺盛해져서 오늘날 이곳에 정하여지는 말에 堂三百 寺五百이라는 말이 있게 되었다 보아지는데, 法華寺址에서도 雄壯한 주춧돌을 찾을 수가 있다.<sup>14)</sup>

水精寺와 元堂寺, 法華寺 등의 大刹들이 元人에 依해 創建되었고…<sup>15)</sup>

축조시기는 주좌가 자주 이용되었던 통일신라기 이후, 덩빙주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고려후기 이전인 고려전기의 기법으로 상정해 볼 수 있겠다.<sup>16)</sup> 법화사의 창건은 10세기 전후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루어졌으며 12세기

5) 《新增東國輿地僧覽卷之三十八》，大靜縣，佛宇條.

6) 李元鎮，〈耽羅志〉，大靜縣，佛宇條.

7) 太宗實錄，〈朝鮮王朝實錄〉，八年(1408)二月丁未條.

8) 5)의 글，太宗六年四月庚辰條.

9) 7)의 글.

10) 高禎鍾，〈濟州島便覽〉瀛洲書館，1930. p.101.

11) 淡水契，〈增補耽羅誌〉，奇聞傳說條，1954. p.274.

12) 大韓佛敎曹溪宗法華寺，〈復元되는 法華寺〉，대영인쇄사，1987. p.3.

13) 朴蒼濟，〈莞島郡誌〉，莞島郡，1977.

14) 濟州道編，〈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報告書〉，濟州道，1973. p.407.

15) 金泰能，1969，〈濟州島略史〉，1969. p.155.

16) 2)의 글，p.29.

경에는 거대한 규모의 사찰이 경영되어서 15세기까지 전성기를 누렸다.<sup>17)</sup>

위의 기록으로 볼 때 法華寺는 대정현 동쪽 45리에 있었다. 元의 濟州를 지배할 적에 彌陀 3尊을 모셨다. 이때에 境内에 어떠한 시설(建物 등)물들을 설치할 무렵 元의 폐망으로 無産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에 法華寺를 婢補寺刹로 하고 寺奴婢 280명을 주었다. 朝鮮 太宗 8年(1408)에 寺奴婢가 30인 이하로 줄이자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원진이 「耽羅志」를 기록할즈음 孝宗 四年(1653) 廢寺되었다. 統一新羅時代의 장보고 창건설을 뒷받침할만한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高麗 12세기경에 창건되었다.

## 2. 元堂寺址

濟州市 삼양동 원당봉에 있다. 1988년 地表調査가 실시되었다. 지금은 도내 유일한 석탑인 5층석탑이 보존되고 있다. 근처의 경작지에 다량의 기와, 도자기, 질그릇 파편들이 산포되어 있다.

在州東二十里.<sup>18)</sup>

濟州邑元堂峰에在하니수廢.<sup>19)</sup>

'1,300년에는 '元나라 奇皇后는 耽羅赤으로 하여금소와 말·나귀·양 등을 방목하게 함과 아울러 都近川의 水精寺와 元堂寺를 짓게 하였다.'<sup>20)</sup>

'元堂寺址에는 七層石塔이 서 있는데...高麗末 忠烈王 26年 元은 城內 東海濱에 三疊七峰下에 大寺刹을 建築하고 使者를 보내어 福을 빌어 元堂이라 하였다고 하는데...'<sup>21)</sup>

元堂寺도 水精寺와 마찬가지로 高麗末 忠烈王 때 創建하였다고 전하는 寺刹로 寺址에서 收合한 瓦片·靑磁 및 粉靑沙器片으로 보아 역시 1,300년 경 부터 1,600년경까지 存續했던 寺刹임이 확실하다.<sup>22)</sup>

17) 2)의 글, p.30.

18) 6)의 글,濟州 佛宇條.

李原祚, 《耽羅誌》, 佛宇條

日本東京大學所藏本, 《耽羅誌》, 佛宇條.

19) 11)의 글, p.247.

20) 濟州市編, 《傳統文化의 뿌리》, 1982, p.82.

21) 濟州道編, 《濟州의 文化財》, 1982, p.80.

22) 4)의 글, p.51.

지금까지의 기록으로 보면 元에 의한 創建으로 보인다. 그러나 元의 창건설에 뒷받침할만한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高麗時代의 樣相이 짙다. 이원진이 「耽羅志」를 기록할 당시(1,653)는 존속되고 있었고, 이형상 목사가 巡視(1,703)할 때는 이미 廢撤되었다.

### 3. 水精寺址

제주시 외도동에 있다. 1988년 元堂寺址와 함께 地表調査된 일이 있으며, 현재도 주위의 경작지에는 다량의 기와편, 도자기편들이 산포되어 있으며, 유구에 따르는 礎石들도 다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在都近川西岸.<sup>23)</sup>

在朝貢川西岸.<sup>24)</sup>

時元初水精寺干都近川.<sup>25)</sup>

水精寺는 忠烈王 26年 西紀 1,300年 元에 의해 創建된 것으로 寺址에서 발견된 瓦片, 靑磁片 및 粉靑沙器를 통해 대략 1,300년에서 1,653년경까지 존속하였던 것으로 推定된다.<sup>26)</sup>

여기에서 첫번째나 두번째의 都近川이나 朝貢川은 外都川을 말한다. 세 번째의 기록은 무엇을 쫓아서 기록한 것인지 알 수 없다. 寺刹의 존속할 당시의 기록에는 元刹이란 것이 없는데, 廢寺(1,700 推定)보다도 무려 200여년의 지난 뒤에 元刹이란 설이 등장하고 있다. 네 번째의 기록은 마치 元에 의한 創建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아직까지 元의 遺物이라고 보이는 것은 없다. 靑磁片과 礎石의 모양으로 보아 高麗時代 樣相이 짙으며, 고려시대에 法華寺와 함께 婢補寺刹로 되어 寺奴婢 130명이 있었다. 朝鮮 太宗 8年(1407) 쇄퇴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원진이 耽羅志를 기록할 당시(孝宗 四年; 1653)에서 이형상이 오기전(肅宗 二十八年; 1702) 사이에 廢撤되었다.

23) 5)의 글, 濟州牧 佛宇條.

24) 18)의 글.

25) 金錫翼, 《耽羅紀年》, 濟州, 1918.

26) 4)의 글, p. 41.

#### 4. 尊者庵址

西歸浦市 靈室 서남쪽 불래오름 기슭에 있다.<sup>27)</sup> 建物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다량의 기와편이 산포되어 있다. 이외에도 도자기, 질그릇과 더불어서 浮圖가 원형 그대로 잘 남아 있다.<sup>28)</sup> 廢寺전까지는 고승의 수도장으로 알려졌고, 조선시대 후기까지 등산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대로 있었다고 전한다.<sup>29)</sup>

在漢孛山西領其洞有石如僧行道狀顏傳修行洞.<sup>30)</sup>

‘子住在那裏 僧又手而應曰住在尊者庵…’<sup>31)</sup>

舊在漢孛山靈室…今移西麓外十里許 即大靜境也.

在漢孛山西距縣東六十里寺東有泉湧出流至百步許伏流地中.<sup>32)</sup>

尊者庵은 島内の 다른 사찰보다도 오래 尊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치에 대하여서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 「新增東國餘地僧覽」의 기록은 ‘존자암은 한라산 서령에 있다. 그 골짜기에는 승이 도를 닦는 모습을 한 돌들이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수행하는 골짜기라고 한다.’로 볼 때, 尊者庵이 처음 있었던 곳은 靈室內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이 곳이 원래의 위치이고 녹하지 위에 ‘절물’이 있는 곳이 옮겨 간 곳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다.<sup>33)</sup> 이 두가지 설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유물편으로 보면 高麗 12세기경 흔적에서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의 것들이 있다.<sup>34)</sup> 현존 해있는 礎石들의 양상이나 伽藍으로 볼 때 조선시대의 것으로 보인다.

#### 5. 成佛庵址

北濟州郡 구좌읍 송당리 成佛오름 증턱에 있다. 가끔, 기와편과 도자기편이

27) 金奉玉, ‘尊者庵의 位置’, 《濟州島史研究》. 경신인쇄사. 1991, pp.31-32.

28) 姜彰彦, ‘尊者庵址’, 《月刊濟州》154號, 1991, pp.82-87

29) 김봉옥, 《제주통사》, 도서출판제주문화, 1987, p.77.

30) 5)의 글.

31) 林悌, 《南溟小乘》正月二十五日, 1577.

32) 6)의 글.

33) 金奉玉, 27)의 글, p.32.

34) 姜彰彦, 28)의 글.

보이나 회귀하다. 성불오름으로 세 면을 두르고, 동측으로 용천수를 두고 있다.

在成佛邱.<sup>35)</sup>

在成佛邱.<sup>36)</sup>

‘須於寺後除滌淨地爲壇以祭余佛廳途行路上望千佛峰一名行道洞俗稱靈谷諸峰怪石峭拔如衆佛拱手峰名以處一面雪山.’<sup>37)</sup>

表善面 成佛邱에 在하니 今廢.<sup>38)</sup>

절터는 成佛오름(해발 약 360m)증턱에 있다. 현재는 초목이 우거져있어서 遺構에 따른 것이나 遺物의 확인이 어렵다. 그러나 소량의 기와편이나 도자기편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정밀 조사가 이뤄지면 확인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39)</sup>

#### 6. 普門寺址

北濟州郡 조천읍 찌꼬리오름 북측에 있다. 경작지에 다량의 기와편과 더불어 도자기편, 질그릇편이 散布되어 있다. 寺址 남쪽으로는 찌꼬리오름이 둘러쳐 있고, 동쪽으로 용천수가 있다.

在巨口里岳北.<sup>40)</sup>

在州東三十里.<sup>41)</sup>

朝天面朝天里境에在하니今廢.<sup>42)</sup>

35) 5)의 글, 旌義縣 佛宇條.

36) 6)의 글, 旌義縣 佛宇條.

37) 金尚憲, 《南差錄》 1601.

38) 11)의 글.

39) 姜彰彦, ‘成佛庵址’, 《月刊濟州》 151號, 1991, pp.91-93.

40) 35)의 글.

41) 36)의 글.

李原祚, 《耽羅誌》, 佛宇條.

日本東京大學所藏本, 《耽羅誌》, 佛宇條.

42) 11)의 글.

出土되는 유물로 보아서 高麗 12세기 전후한 시기에 創建되어 朝鮮 17세기 전후한 시기까지 存續했던 것으로 보인다.<sup>43)</sup> 이원진이 「耽羅志」를 기록할 당시(1,654) 있었던 것과 이형상이 島內에 寺刹들이 허물어지고 僧도 없다는 기록(1,702)으로 볼 때, 이 사이에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

### 7. 江臨寺址

北濟州郡 함덕리에 있다. 주변의 주택지로 되어 있어서 痕迹을 찾아 보기는 쉽으나, 遺構에 따르는 基壇石들이 주택지 근처에 다량으로 흩어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근처의 공터에서 기와편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1990년 봄에 藥硯이 출토된 일이 있다. 이 근처를 '절골'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남측의 용천수를 '소래물', '사래물'이라고 부르고 있다.<sup>44)</sup>

在州東威德浦口.<sup>45)</sup>

在州東威德浦口.<sup>46)</sup>

朝天面威德浦口에在하니今廢.<sup>47)</sup>

여기에서 威德浦口라 함은 현재 埋立된 '고녕이선창'을 말하였던 것 같다. 寺址는 함덕리 1,286번지 일대이다. 遺構에 따르는 基壇石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유물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1991년 사지 서측 주택에서 기와편 몇 조각을 봤는데 작업(꽃밭조성)을 할 때 出土된 것이라고 했다. 金尚憲의 「남사록」에는 '곧, 元때에 세운 江臨寺인데 절 앞에 華表가 있고...'라고 하여서 朝鮮 先祖 34年(1,601)에까지는 절이 存續되었다. 이후, 李元鎭의 耽羅志(1,654)에도 기록이 있는데, 李衡祥의 「南觀博物誌」에는 없으므로 廢寺時期를 추정할 수 있다.

43) 姜彰彦, '普門寺址', 《月刊濟州》153號, 1991, pp.83-85.

44) 姜彰彦, '江臨寺址', 《月刊濟州》142號, pp.80-85.

45) 23)의 글.

46) 李元鎭, 18)의 글.

47) 11)의 글, p.246.

8. 海輪寺址

濟州市 용담동에 있다. 지금은 용화사라는 近代 사찰이 들어 서 있으나, 石佛 2기와 근처의 주택지나 耕作地에는 다량의 기와편과 도자기편들이 흩어져 있다. 石佛 남측으로 '절왓'(寺田)이라는 밭이 있고, 낮으막한 구릉을 '절동산'이라고 부른다.<sup>48)</sup>

一名西資福在州獨浦口.<sup>49)</sup>

一名西資福在州西大瓮浦口.<sup>50)</sup>

名西資福이라濟州邑龍潭里大瓮浦口에在하니今廢.<sup>51)</sup>

위의 글에서 僧覽에는 浦口 이름이 '獨浦'라고 되어 있고, 「耽羅志」에는 「大瓮浦口」로 되어 있다. 이는 지금의 屏門川 下流를 말한다. 사찰은 이원진이 「耽羅志」을 기록할 당시에는 있었다. 그후, 50여년이 지나서 李衡祥이 기록에 의하면, '절은 허물어지고 스님도 없으니 재목을 뜯어다가 官衙를 고쳤다.'는 것으로 보아 廢寺時期(1702)를 알 수 있다. 그러나 18世紀 中期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海東地圖」에는 '海輪寺'가 表記되고 있다.

9. 萬壽寺址

濟州市 건입동에 있다. 지금은 주택들이 많아서 절터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으나 石佛 1기가 서 있어서 옛 萬壽寺의 절터임을 확인할 수 있다.

一名東資福在巾入浦東岸.<sup>52)</sup>

一名東資福在健入浦東岸上.<sup>53)</sup>

一名東資福이라濟州邑建入浦東岸上에在하니今廢.<sup>54)</sup>

48) 姜彰彦, '海輪寺址', 《月刊濟州》143號, pp.63-69.

49) 23)의 글.

50) 李元鎭, 18)의 글.

51) 11)의 글, p.246.

52) 23)의 글.

53) 李元鎭, 18)의 글.

54) 淡水契, 11)의 글, p.246.

건입포(巾入浦, 建入浦)는 지금의 산지항인 곧, 濟州港을 말하고 있다. 寺址의 石佛은 海輪寺의 西資福과 흡사한 樣相과 뜻을 가지고 있다. 이 2기의 石佛은 濟州牧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 10. 逝川庵址

濟州市 사라동에 있다. 北濟州郡 광령리 무수천변 동쪽 변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은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사지 남측으로 용천수가 있고, 구룡의 민묘의 비에 '古佛田(고불왓)'이라고 표기되어 있다.<sup>55)</sup>

在朝貢川上.<sup>56)</sup>

在朝貢川上.<sup>57)</sup>

都近川上今廢.<sup>58)</sup>

州邑都近川上에在하니今廢.<sup>59)</sup>

河川 이름인 '朝貢川'이나 '都近川'은 같은 이름으로 지금의 외도천을 말한다. 寺址는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口傳에는 몇 십(30)년 전에는 하천변에 石佛이 있었다고 전한다.<sup>60)</sup> 다량의 기와, 도자기 등이 산포되어 있다. 一說에는 濟州의 高僧인 慧日 스님이 修道하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sup>61)</sup> 사찰의 創建은 高麗 12세기 경으로 알려지고 있고, 廢寺時期는 金尚憲이 「남사록」을 기록할 당시인 朝鮮 宣祖 34年(1601)경이다.<sup>62)</sup>

#### 11. 窟庵址

南濟州郡 안덕면 산방산에 있다. '山房窟寺'라고도 불린다. 고려 때 혜일법

55) 姜彰彦, '逝川庵址', 《月刊濟州》148號, pp.84-87.

56) 23)의 글.

57) 李元鎮, 18)의 글.

58) 金尚憲, 37)의 글.

59) 淡水契, 54)의 글.

60) 55)의 글.

61) 29)의 글.

62) 55)의 글.

사가 불상을 모셨다고 전하는 곳이다.<sup>63)</sup>

在縣東十里…其南涯有大石窟有僧建至窟中號窟庵.<sup>64)</sup>  
卽 山房窟寺라.<sup>65)</sup>

## 12. 妙蓮寺址

北濟州郡 애월읍 광령리에 있다. 정련수라는 용천수가 있고 주변의 耕作地에는 다량의 기와편과 도자기편들이 散布되어 있다. 주변의 墓 산담에는 이 寺刹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石物들이 있고, 碑에는 '靜蓮寺'라고 표기되고 있다. 현재는 大覺寺라는 사찰이 있다.<sup>66)</sup>

在州西二十五里.<sup>67)</sup>  
在西南二十里.<sup>68)</sup>  
涯月面郭支邱西에在하니今廢.<sup>69)</sup>

勝覽과 耽羅志의 기록은 방향이나 거리가 틀리다. 또한 增補耽羅誌는 涯月邑 郭支邱 서쪽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서 위치상 불분명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조사는 계속하였지만 확증할 자료가 없었다. 다만, 수막새·암막새·평와·石製遺物·도자기들을 발견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평와중에는 '同願此處官李員村·萬戶李' 등을 발견되었다.<sup>70)</sup> 이와같은 銘文기와는 1991년 濟州牧官衙址를 發掘調査에서 出土되었다.<sup>71)</sup> 이는 아직까지

63)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제주도편-, 1984, p.389.

64) 李元鎮, 6)의 글.

65) 11)의 글.

66) 姜彰彦, '첫 公開되는 濟州의 옛 절터들-濟州의 寺址-', 《月刊濟州》143號, 1990, p.58.

67) 23)의 글.

68) 李元鎮, 18)의 글.

69) 11)의 글, p.245

70) 현재, 大覺寺에 保管되고 있음.

71) 濟州大學校博物館에 의하여 發掘됨. 遺物은 同 博物館에 있음.

‘光令里寺址-1’이라는 곳이 妙蓮寺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13. 靈泉寺址

西蹄浦市 영천동에 있다.

在靈川東岸.<sup>72)</sup>

靈泉東岸.<sup>73)</sup>

‘靈泉在縣六十里…川之西岸有靈泉寺東岸有靈泉館規廢.’<sup>74)</sup>

西蹄面 上孝里 靈泉川 東岸에 在하니 今廢.<sup>75)</sup>

靈泉寺址는 영천봉 서측에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竹林이 우거져 있다. 1966년경에 기와조각들이 있었다고 전한다. 사찰의 서측 하천변, 입구로 보이는 곳에는 觀巖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한다.<sup>76)</sup> 또한, ‘서귀포시 상호동 1075, 1077번지 일대로 돈내코입구 상호교다리밑 靈泉邱오름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감골과수원으로 조성되 있다.’<sup>77)</sup>라고 전하고 있다.

14. 頓水庵址

北濟州郡 하도리 지경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확인할 수 없다.

在州東八十里.<sup>78)</sup>

濟州邑東三十二軒許에在하니今廢.<sup>79)</sup>

15. 安心寺址

濟州市 화북동 남측 지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일주도로로 인하

72) 35)의 글.

73) 李元鎮, 36)의 글.

74) 金尚憲, 37)의 글.

75) 11)의 글. p.247.

76) 靈泉國民學校, 1986, 《鄉土誌》, 大信印刷社, p.14.

77) 한라불교신문, 단기 2534년(1990) 12월 1일

78) 6)의 글, 濟州牧 佛宇條.

79) 11)의 글, p.247.

여 절터는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끔, 기와편 도자기편들이 눈에 띈다.<sup>80)</sup>

在東十里.<sup>81)</sup>

濟州邑東四軒에在하니今廢.<sup>82)</sup>

#### 16. 小林寺址

濟州市 거로동에 있다. 마을 남측으로 '절동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다. 서북편으로 '절터'라고 불리우는 경작지가 있고, 이 앞으로 '절거리'라고 일컬어지는 길이 나 있다. 또한, 사지의 남측으로는 용천수가 있는데 '절물'이라고 한다.<sup>83)</sup>

在州東南十里.<sup>84)</sup>

在州東南十里.<sup>85)</sup>

濟州邑東南四軒許에在하니今廢.<sup>86)</sup>

寺址는 기와, 도자기 등의 조각이 발견되고 있다. 遺構에 따르는 유물들은 발견이 안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료와 유물로서 新羅時代 末期에 이미 小林寺는 있었고, 朝鮮時代 中期까지도 寺刹이 기능을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sup>87)</sup> 그러나 필자는 新羅時代의 遺物을 1985년부터 아직까지 찾지 못 했다. 3여년 전에 동부산업도로가 사지를 통과하는 바람에 지금은 절물의 흔적도 없고 寺址의 區域도 작아져 없어질 위기에 있다.

80) 姜彰彦, 65)의 글, pp.63-64.

81) 6)의 글, 濟州牧 佛宇條.

82) 11)의 글, p.247.

83) 1985년 濟州大學校博物館에서 실시된 文化遺蹟 調査.

84) 5)의 글, 濟州牧 佛宇條.

85) 6)의 글, 濟州牧 佛宇條.

86) 11)의 글, p.246.

87) 金炳夏, 1988, "朝鮮前期의 對日貿易과 後期倭寇에 관한 試論-乙卯倭變과 小林寺를 中心으로-", 《제주도》 84호, pp.182-201.

17. 郭支寺址

北濟州郡 곽지리에 있다. 郭錦國民學校 남측에 위치하고 있다. 寺址와 주변은 모두 경작지로 되어 있다. 곽지리 사람들은 이 근를 일컬어 '절왓'(寺田)이라고 하며, 이 밭의 북쪽의 조그만 길을 '절질'(寺道)라고 부르고 있다. 寺址라고 추정되는 곳에는 다량으로 기와, 도자기, 질그릇 조각들이 散布되어 있다.<sup>88)</sup>

在州西四十五里今廢.<sup>89)</sup>

涯月邑郭支里에在하니今廢.<sup>90)</sup>

위의 기록으로 의하면, 郭支寺는 이원진이 「耽羅志」를 기록할 당시인 朝鮮 孝宗 2年(1651)에 이미 廢寺된 것으로 보인다. 創建時期에 대하여서는 알려진 것이 없는데 地表의 遺物로 보면 高麗 12세기경으로 보인다.<sup>91)</sup> 그러나 주변에 統一新羅時代의 질그릇들이 많이 있어서 이 遺物들의 寺刹과 관련 상태에 따라 상한년대는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寺址에서는 문듯대로 보이는 것과 基壇石으로 推定되는 유물들이 나타난다. 특히, 濟州島에서는 볼 수 없었던 鬼面암막새가 出土되어서 寺刹 性格이 우리나라 內陸地方과 一致되는 듯하다.

18. 頭陀寺址

일명, 雙溪庵이라고도 한다. 한라산 남측 구룡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90년 여름의 조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다. 口傳에는 길잇은 사람이 해매이다가 石佛을 보았다는 설이 있다.<sup>92)</sup>

88) 姜彰彦, 1990, "郭支寺址", 《月刊濟州》 141號, pp.52-59.

89) 6)의 글, 濟州牧 佛宇條.

90) 11)의 글, p.247.

91) 88)의 글.

92) 濟州市 吾羅洞에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漢驛山에서 길을 잃고 해매이다가 石佛을 보았다는 얘기를 '月刊濟州' 文化部長인 김순남 씨가 들었다는 설.

‘向頭陀寺行遠多凹陷如臼而短竹黃茅覆於其上馬行甚艱十五里許懸崖如削崖下大溪橫流寺在兩溪之間寺之一名雙溪庵…’<sup>93)</sup>

19. 金剛寺址

濟州市 州城의 동남측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들과 도로 등의 완전히 들어서 있어서 확인이 불가능 하다.

‘在州城東內外半里 金剛杜舊寺基…’(金淨, 《濟州風土錄》)

20. 月溪寺址

北濟州郡 한림읍 옹포리에 있다고 전하나, 1984년부터 1991년까지 甕浦를 중심으로 明月里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완전히 조사하였으나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필자는 한림읍 옹포리 근처라는 설은 잘 못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제주시 삼도동 병문천 하구 동남측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在甕浦東南.<sup>94)</sup>

在甕浦東南今廢.<sup>95)</sup>

翰林面甕浦里東岸에在하니今廢.<sup>96)</sup>

위의 문헌에서 ‘甕浦’, ‘瓮浦’는 현재의 屏門川 하류를 일컬고 있다고 본다. 이는, 海輪寺의 위치를 表記할 때도 같은 浦口 이름을 적고 있는 것과 글자가 같음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1988년 한림읍에서 나왔다는 浮都의 蓋石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는 濟州大學校博物館에서 收藏 保管하고 있으나, 骨董品商에서 收入된 것이어서 확실한 出處는 알 수 없다. 다만, 石質이나 形態로 보아서 濟州島에 것은 틀림이 없다고 推定된다.

93) 金尚憲, 《남사록》

94) 5)의 글, 濟州牧 佛宇條.

95) 6)의 글, 濟州牧 佛宇條.

96) 11)의 글, p.245.

21. 觀音寺址

北濟州郡 조천읍 조천리 浦口 동측에 있다. 寺址로 보이는 곳은 경작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다량의 기와편이 있고 간혹, 陶磁器片도 보인다. 一說에는 1960년대 말경에 밭을 깊이 갈아 엮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柱礎石으로 보이는 것과 작은 돌들이 나왔다고 전하고 있으나,<sup>97)</sup> 1985년부터 현재까지 10여차례를 조사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하였다.<sup>98)</sup> 「지명총람」에는 ‘觀音寺터’, ‘금당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금당못’ 근처에 觀音寺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99)</sup>

在朝天館浦.<sup>100)</sup>

在朝天浦上.<sup>101)</sup>

朝天面朝天浦上에在하니今廢.<sup>102)</sup>

아직까지 寺址에서 출토된 遺物들은 기와편·도자기편들이다. 기와편으로 ‘奉進’이라고 銘文된 것이 있다. 文樣으로 ‘認冬紋平瓦片’과 ‘複合紋平瓦片’이 있는데,<sup>103)</sup> 이는 元堂寺址의 ‘樹枝認冬紋平瓦片’ 및 ‘複合紋平瓦片’<sup>104)</sup>과 같은 樣相을 하고 있다.

22. 日果里寺址

南濟州郡 大靜邑 日果里 바닷가 근처에 있다. 寺址는 경작지로 조성되어 있다. 이 밭을 ‘절왓’, ‘절터왓’, ‘寺田’ 등으로 부른다. 다량의 기와·도자기·

97) 光令里 大覺寺 주지스님의 說.

98) 姜彰彦, 65)의 책, p.65.

99) 1991, “觀音寺址”, 《月刊濟州》155號. pp.120-123.

63)의 글, p.449.

100) 5)의 글, 濟州牧 佛宇條.

101) 6)의 글, 濟州牧 佛宇條.

102) 11)의 글, p.246.

103) 98)의 책, 寫眞 4, 寫眞7.

104) 4)의 글, 元堂寺址 寫眞 34,56.

질그릇 조각들과 遺構에 따르는 礎石 20여점이 산포되어 있다.<sup>105)</sup>

사찰의 創建은 高麗 12세기경으로 보여지고 있고, 廢寺時期는 조선시대 중기경으로 추정된다.<sup>106)</sup> 발견된 礎石들은 水精寺址의 것과 흡사하다. 基壇石과 문둔태로 보이는 것도 발견되었다. 전체적으로 遺構에 따른 礎石들이나 遺物片들이 잘 남아 있으므로 濟州島 佛敎 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곳으로 판단된다.

### 23. 九男洞寺址

濟州市 도남동에 있다. 지금은 보덕사라는 사찰이 있다. 주변의 구릉에는 기와편들이 散布되어 있다.<sup>107)</sup> 이 일대를 '독짓골'이라고 하는데, 보덕사 입구의 洪씨 墓碑에 '德池'라고 기록되고 있다.

### 24. 梧登洞寺址

濟州市 오동동 속칭, 죽성이라고 불리우는 남쪽 지경에 있다. 지금은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기와편 도자기편들이 보이며, 서측으로 '절새미'라는 용천수가 있다.<sup>108)</sup> 寺址라고 推定되는 일대를 '절왓'(寺田) 또는 '불탄터'라고 한다.

### 25. 海安洞寺址

濟州市 해안동에 있다. 이근처를 일컬어 '절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절터 동측의 용천수를 두고하는 말이다. 寺址는 현재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다량의 기와, 도자기, 질그릇 파편이 散布되어 있다.<sup>109)</sup>

### 26. 光令里寺址

北濟州郡 애월읍 광령리 2309번지, 광령국민학교 서쪽 '절동산'에 있다. 지금은 향림사라는 寺刹이 들어 서 있다. 寺址라고 추정되는 곳은 현재 과수원

105) 姜彰彦, "日果里寺址", 《月刊濟州》146號, 1990, pp.94-98.

106) 65)의 글, pp.61-62. 西林里寺址와 같음.

107) 65)의 글, pp.62-23.

108) 65)의 글, p.63.

109) 65)의 글.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량의 기와편과 더불어 陶磁器片들이 있다. 1990, 1991년에 광령리 사지-2로 발표된 바 있다. 문헌태 2점을 비롯하여서 많은 유물편들이 있다. 구전에는 石佛이 있다고 하나 아직까지 발견이 안되고 있다. 高麗 12세기 후반에 創建되어 朝鮮 17세기경까지 存續하였던 것으로 類推된다.<sup>110)</sup>

#### 27. 光令里寺址-2

광령리 속칭, '너븐걸'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있다고 전하고 있으나,<sup>111)</sup> 확인할 수 없었다.

#### 28. 都坪洞寺址

濟州市 도평동 남측에 있다. 지금은 황무지로 되어 있고 근대에 있었던 '괘남걸'도 황폐하여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進入路로 향하는 도로 옆에는 큰 住礎石 한 개가 놓여져 있는 것을 1990년 여름에 광령리 大覺寺 法無스님과 조사하다 발견되었다. 형태와 크기가 水精寺址, 日果里寺址의 것과 흡사하다. 一說에는 逝川庵의 石佛을 이곳으로 옮겨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찾지 못하였다.

#### 29. 古城里寺址-1

北濟州郡 애월읍 고성리 향과두리 동쪽에 있다 지금은 경작지로 조성되어 있다. 근처에 기와편 도자기편 등이 散布되어 있다.

#### 30. 古城里寺址-2

古城里 향과두리 북쪽 약 1킬로미터 地點에 있다. 지금은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기와편을 비롯하여 陶磁器片, 질그릇편들이 散布되어 있다.<sup>112)</sup>

#### 31. 泰山寺址

---

110) 姜彰彦, "光令里寺址-2". 《月刊濟州》145號, 1991, pp.82-86.  
65)의 글, pp.58-59.

111) 《光令略史》, 1990, p.53.

112) 65)의 글, p.60.

北濟州郡 涯月邑 금덕리 '절동산' 북측에 있다. 현재 과수원 및 경작지로 조성되어 있다. 다량의 기와편을 비롯하여 도자기편, 질그릇편이 있다. 石鼓로 보이는 유물 2점이 '절동산'의 계단 양 옆에 놓여져 있다. 무환자나무들이 있는데, 당시의 스님들이 염주(열매이용)를 만들기 위해 심은 것이라고 한다. 1989년에 磨耗된 碑를 발견하였다. 1990년 濟州大 文基善 教授에 의해 '泰山石'이라고 陰刻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寺址 북측으로 '流水岩'이라는 용천수가 있다. '流水岩碑'에 '泰岩寺'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泰山石'을 '泰岩'으로 된 것으로 보인다.<sup>113)</sup>

32. 長田里寺址

北濟州郡 애월읍 長田里 속칭, '강구지동산'이라는 동산의 북쪽에 '절왓'이라고 하여 절이 있었다고 전한다.<sup>114)</sup>

33. 納邑里寺址

北濟州郡 애월읍 納邑里 마을 서쪽 속칭, '절빌레'에 있다. '절왓'이라고 하여 절에 딸려 있었던 밭도 있다.<sup>115)</sup> 지금은 耕作地로 조성되어 있다. 확실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나, 간혹 陶磁器와 기와 破片이 보인다.<sup>116)</sup>

34. 於道里寺址

北濟州郡 애월읍 어도리 속칭, '절왓동산'에 '절왓'이라고 하는 밭이 있고 절이 지어져 있었다고 전한다.<sup>117)</sup> 마을 남쪽 2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나, 산중이라서 위치를 확인하기 힘들다.

35. 高内里寺址

北濟州郡 涯月邑 高内里 남쪽에 있다. 寺址는 경작지로 조성되어 있다. 다

113) 姜彰彦, "泰山寺址", 《月刊濟州》147號, 1990, pp.94-98.

65)의 글, p.60. 今德里寺址로 표기됨.

114) 63의 글, p.442.

115) 63의 글, p.424.

116) 65)의 글, p.64.

117) 63)의 글, p.430.

량의 기와, 도자기, 질그릇 조각들이 산포되어 있다.<sup>118)</sup>

36. 東明里寺址

北濟州郡 한림읍 東明里 文殊洞에는 속칭, '문수물', '문수물동산', '문수암터'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고, 옛질 '文殊庵'이라는 寺刹이 있었다고 전하여서,<sup>119)</sup> 1986-1990년까지 7-8차례 踏査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37. 金陵里寺址

北濟州郡 金陵里 마을 북측에 있었다. 속칭, '절동산'이라고 불리우며, 절이 있었다고 전한다.<sup>120)</sup> 지금은 일주도로로 寺址는 훼손된 것으로 보이며, 근처에 陶磁器, 기와片이 간혹, 눈에 띈 뿐이다.<sup>121)</sup>

38. 甕浦里寺址

北濟州郡 한림읍 옹포리에 '月溪寺址'가 있다고 전하여서<sup>122)</sup> 甕浦里 일대를 1985년경 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조사를 하였으나 찾아낼 수 없었다. 완전하게 毀損되었던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浮圖 屋蓋<sup>123)</sup>가 한림읍에서出土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는, 앞으로 풀어야할 課題이다.

39. 樂泉里寺址

北濟州郡 한경면 樂泉里에는 속칭, '수룡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다. 이 밭 남쪽에는 '절왓'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는데 절의 소유였던 것으로 전해진다.<sup>124)</sup>

---

118) 姜彰彦, 1991, "高内里寺址", 《月刊濟州》156號, pp.94-97.

119) 63)의 글, p.475.

120) 63)의 글, p.459.

121) 65)의 글, pp.64-65.

122) 63)의 글, p.481.

11)의 글.

29)의 글.

123) 濟州大學校博物館 所藏.

124) 63)의 글, p.460.

40. 安城里寺址

南濟州郡 안성리 大靜城址 동측에 '절동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41. 大浦洞寺址

西歸浦市 대포동에 있다. 마을 동남쪽 속칭, '절터왓'에 있는데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소량의 陶磁器, 기와 조각이 있을 뿐이다.<sup>125)</sup> 약 200m 떨어진 大浦浦口에 住礎石 1기를 비롯, 마을에 3기가 이곳(절터왓)의 礎石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확인이 안되고 있다.<sup>126)</sup> 法華寺址 礎石과 흡사한 樣相을 하고 있다.

42. 龍興洞寺址

西歸浦市 용흥동 마을 서쪽에 속칭, '고분절'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절이 있었다고 전한다.<sup>127)</sup>

43. 吐坪里寺址

西歸浦市 토평동 남측, 濟州大學校 植物園 서쪽에 '절물'이라는 곳 근처에 寺刹이 있었다고 전하여 찾아 보았으나 寺址는 확인이 안되었다.

44. 甫木洞寺址

西歸浦市 보목동 '절동산' 서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소량의 질그릇, 陶磁器, 기와 조각들이 있으며,<sup>128)</sup> 절동산 남측에 조그만 동굴이 있는데 스님들이 수도하였던 곳이라고 한다.<sup>129)</sup>

45. 下藝里寺址

---

125) 1989, 1991년 절터왓 조사시에 간혹 보였음.

126) 金平允, 1990, "大浦海岸에서 發見한 法華寺住礎石메모", 《제주도》 89호, pp.132-139.

127) 63)의 글, p.500.

128) 65)의 글, p.65.

129) 《보목리지》, 1991.

南濟州郡 대정읍 하모리에 있다. 하모리와 상모리 경계에 '절왓'이라고 불리우는 밭이 있다.<sup>130)</sup> 송악산 근처의 耕作地에는 기와, 陶磁器, 질그릇 조각들이 散布되어 있다.

46. 下禮里寺址

南濟州郡 남원읍 下禮里 레촌망(해발 67.5m) 서편에 '절왓'<sup>131)</sup> 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있었다고 하나 위치 확인 못하였다.

47. 新興里寺址

南濟州郡 남원읍 新興里에 있다. 광태물 북쪽의 '절태동산'이라는 곳에 절터가 있다고 전한다.<sup>132)</sup> 1989년 여름에 調査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48. 新豐里寺址

南濟州郡 성산읍 新豐里에 있다. 돈당모르 서쪽 地境에는 속칭, '절태왓'이라고 불리우는 밭이 있는데, 寺刹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sup>133)</sup>

49. 坪岱里寺址

北濟州郡 구좌읍 평대리 '감수동'이란 마을에 있었다. '감수'라고 전하는 것은 당시 스님들이 파 놓은 용천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용천수만 있고 寺址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으나, 대략 마을 북측인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sup>134)</sup>

50. 吾照里寺址-1

南濟州郡 성산읍 오조리 마을 남측에 있다. 耕作地로 조성되어 있는데 다량의 陶磁器, 기와, 질그릇 破片들이 흩어져 있다. 이 밭을 일컬어 '기왓장아진 밭'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문둔태를 비롯 基壇石, 기와·陶磁器片들이 많이

---

130) 63)의 글, p.373.

131) 63)의 글, p.366.

132) 63)의 글, p.359.

133) 63)의 글, p.385.

134) 65)의 글, p.66.

있다. 1978년 언급된 바 있는데 자세히 알리지 못하였다.<sup>135)</sup> 그리고 「吾照里誌」를 편찬할 당시에도 조사된 바 있다.<sup>136)</sup> 1990년에 조사하여 紀元後 13世紀를 중심으로 하여 創建되었고 16-17世紀에 廢寺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37)</sup>

#### 51. 吾照里寺址-2

吾照里寺址-1과 동북쪽으로 약 5백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기단석으로 보이는 것들과 기와 도자기 질그릇 편들이 散布되어 있다. 寺址는 경작지로 되어 있다. 이 밭을 일컬어 '절왓'이라고 한다. 寺址의 서쪽 밭담(경계)에는 탐의 일부분으로 생각되는 석제유물이 있다.<sup>138)</sup> 吾照里寺址-1과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다른 양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0년 절왓(서쪽밭)의 일부분을 포크레인으로 표면을 밀어 버리는 바람에 훼손되었다. 1986년 마을지를 편찬할 당시 보고된 바 있다.<sup>139)</sup>

#### 52. 我羅洞寺址

濟州市 아라동 속칭, 산천단 동측에 있다. 이 근처에 속칭, '小林寺터'라고 하여 小林寺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sup>140)</sup> 1987년 기와편들이 散布되어 있는 것을 확인 했는데 寺刹과의 관계는 알 수 없다.

#### 53. 三徒洞寺址

濟州市 삼도동 觀德亭 동북측에 寺刹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1990년 제주 노인당 신축공사 때에 寺刹에 따른 石物로 推定되는 것이 出土된 바 있다.

#### 54. 今德里寺址-1

北濟州郡 애월읍 금덕리 목장지대에 있다. 현재, 홀리데이호텔 북측 약 1키

135) 濟州大學學徒護國團, 《海村生活調査報告書》-龍水里 및 吾照里-, 濟州大學校博物館, 1978.

136) 오성찬 외, 《吾照里》, 도서출판 반석, 1986, pp.96-98.

137) 姜彰彦, "吾照里寺址-1", 《月刊濟州》145號, 1990, pp.100-104.

138) 姜彰彦, "吾照里寺址-2", 《月刊濟州》149號, 1991, pp.108-111.

139) 136)의 글.

140) 63)의 글, p.529

로 정도에 '절물'이라는 용천수와 절터로 추정되는 곳이 있는데 1990년경 누군가에 의하여 중장비로 흙을 채취하는 바람에 흔적은 찾기 힘들게 되었고 주변에 기와, 도자기 파편들이 간혹 보일 따름이다.

55. 上貴里寺址

北濟州郡 애월읍 상귀리에 있다. 동북측으로 해발 약 100m의 파군봉이 있고 남쪽으로 '부처물'이라고 불리우는 용천수가 있다. 도자기, 질그릇, 기와편이 소량으로 나타난다. 구전에는 부처물에 옛 스님의 사용하던 대양(銅鼓?)가 묻어져 있다고 하며, 최근까지 불상이 있었다고 전하나 확인할 수 없었다.<sup>141)</sup>

56. 奉蓋洞寺址-1

濟州市 봉개동 지금 대기고등학교 동북측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대의 경작지에는 磁器片이나 질그릇편이 보이고 있는데 性格과 位置는 알 수 없고 粉靑沙器나 白磁片으로 類推할 따름이다.<sup>142)</sup> 寺址는 속칭, '절터왓'이라고 불리우는 경작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43)</sup> 또한, '절터왓'에는 6백년전 정·조씨가 입주하였다는 설을 비롯 '절이 들어 섰던 밭'으로 불리우기도 한다.<sup>144)</sup>

57. 奉蓋洞寺址-2

濟州市 봉개동 남쪽 10km지경의 절물오름에 있다. '절물'이라고 불리우는 용천수가 있다.<sup>145)</sup>

58. 立石洞寺址

西歸浦市 입석동에 있다. 바위에 '고래'를 만들어 사용했던 痕迹이 있으며, 십여년 전에는 둥그스름한 작은 돌들이 많이 있었다고 전하나,<sup>146)</sup> 1991년 여

141) 姜彰彦, "上貴里寺址", 《月刊濟州》152號, 1991, pp.102-105.

142) 筆者가 1989년 봄에 現場을 踏査하고 1990년 여름에 調査하였으나 精確한 材料를 把握하지 못함.

143) 오성찬 외, 《奉蓋里》, 1988, pp.36-37, 52.

144) 제남신문, "濟州의 鄉史-奉蓋洞編", 1978.

145) 143의 글, p.54.

146) 光令 大覺寺 法無스님의 設.

름 筆者가 찾았을 때는 道路가 만들어져 있고 '고래' 밖에 없었다. 周邊을 調査함에도 찾을 수 없었다.

59. 文殊庵址

北濟州郡 광령리 妙蓮寺址 남측 지경에 있다고 전하고 있으나,<sup>147)</sup>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在西南二十七里.<sup>148)</sup>

在西南二十七里.<sup>149)</sup>

濟州邑西南十一阡許在하니今廢.<sup>150)</sup>

60. 西歸浦市寺址

頭陀寺(雙溪庵)에서 2.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고 전한다. 아직 찾지 못하였다.

‘行十餘里又有一古寺遺址石秀泉清亦可盤旋…’<sup>151)</sup>

61. 城山寺址

城山浦 日出峰 안에 있었다. 李慶祿 목사때 創建하였다.

‘李慶祿時瓶寺干成中有妖僧言當有佛佑寺後得一泉脈從石竇滲漏而終日董盈一鉢…’(金尚憲:《南磔錄》)

62. 河原洞寺址

西歸浦市 하원동 용흥마을 남쪽에 있다. 지금의 水雲敎寺가 있는 근처를 일컬고 있다. 1989년 여름에 踏查하였으나 確證될만한 것은 찾지 못한 상태이

147) 光令 大覺寺 法無 스님의 設. 寺址가 연못으로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함.

148) 5)의 글, 濟州牧 佛宇條.

149) 6)의 글, 濟州牧 佛宇條.

150) 11)의 글, p.245.

151) 37)의 책.

다.

63. 사단동寺址

西歸浦市 사단동 남쪽 녹하지 위에 있다. 용천수가 있는데 '절물'이라고 한다. 朝鮮 孝宗年間에 尊者庵이 옮겨졌는데 그곳이 바로 이 '절물' 근처라는 얘기가 있다.<sup>152)</sup> 소량의 기와편이 散布되어 있다.<sup>153)</sup>

64. 今德里寺址-2

北濟州郡 금덕리사지-1에서 남쪽으로 약 2km 정도에 있다고 전한다.<sup>154)</sup>

65. 金寧里寺址-1

北濟州郡 김녕리 왕사동에 '왕사(王寺)'라는 寺刹이 있었다고 전한다.<sup>155)</sup>

66. 金寧里寺址-2

北濟州郡 김녕리 '부무술(신산동)'지경에 '홍법사'라는 寺刹이 있었다는 설이 있다.<sup>156)</sup>

67. 兎山里寺址

南濟州郡 안덕면 토산리에는 '절래앗'이라고 부르는 밭이 있다. 高麗 예종 때(1147-1170) 濟州道에 東西道縣을 설치할 당시 '감옥'이 있었던 곳이라고도 전하여 지고 있다.<sup>157)</sup>

68. 西衣里寺址

南濟州郡 남원읍 서의리에 있다. 마을 서남쪽에 '善光寺'라는 寺刹이 있는

152) 29)의 글.

153) 1990년 踏査시에 確認.

154) 1990년 금덕리사지-1를 조사할 때 60세경으로 보이는 출(꼰)베는 할머니께 채록하였는데 기록장을 분실했음. 경치가 좋고 '절물'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다고 함.

155) 金順伊, "東金寧里的 信仰", 《調查研究報告書》6輯,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1, p.170.

156) 155)의 글.

157) 제남신문, "濟州의 鄉史"-113-, 表善面 兎山里. 1979.

데 중종 30년 (1,535)에 세웠다고 전한다.<sup>158)</sup>

69. 大川寺

濟州市 龍潭洞 大川(한천) 서측에 있었다. 창건시기는 알 수 없으나 奎章閣에 소장된 濟州三縣圖(帖「海東地圖」)에 의하면 18世紀 中期까지는 존속되고 있었다.

70. 仁城里寺址

南濟州郡 대정읍 仁城里에 있다. 속칭, '절터'라고 불리우는 곳에 절이 있었다고 전한다.<sup>159)</sup> 아직 찾지 못하였다.

71. 上道里寺址

北濟州郡 구좌읍 상도리 前沙洞이라는 마을에 있었다. 갯밭 남쪽에 속칭, '절뜨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는데 절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60)</sup>

72. 上加里寺址

北濟州郡 애월읍 上加리에 있다. 속칭, '절왓'이라고 불리우는 밭이 '평밭' 서쪽에 있는데, 부근에 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sup>161)</sup>

73. 涯月里寺址

北濟州郡 애월읍 涯月리에 속칭, '절왓'이라고 불리우는 밭이 있고,<sup>162)</sup> '탐아진밭'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어서 踏查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하였다.

74. 歸德里寺址

北濟州郡 한림읍 歸德里 신흥동에는 속칭, '절왓'이라고 불리우는 밭이 있는데, 이 밭은 절에 딸려 있었다고 전한다.<sup>163)</sup>

158)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제주도편-, 1984, p.359.

159) 63)의 글, p.372.

160) 63)의 글, p.408.

161) 63)의 글, p.426.

162) 63)의 글, p.429.

163) 63)의 글, p.471.

### Ⅲ. 佛 像

#### 1. 海輪寺 石佛立像

海輪寺址에 현존하여 있는 石佛立像으로 海輪寺址 境內로 추정되는 곳에 동향을 하고 서 있다. 이 石佛을 일컬어 구전적으로 '복신미륵·자복·자복미륵·미륵·큰어른'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 石佛立像은 높이 290cm 정도이며, 濟州産 多孔質 玄武岩으로 제작되어 있다. 下段部에는 거칠게 다듬은 둥그스름한 원통형의 石臺가 있고 그 위에 石佛立像을 세우고 대패랭이 같은 형식으로 다듬은 모자가 씌워져 있다.

法依는 通絹이지만 목과 어깨부분에서 下段部까지 앞의 터진 道袍같은 것을 입고 있으며 문양은 표현되고 있지 못 하다.

이러한 형태의 佛像은 상호에서 土俗化 되어 가는 高麗時代의 佛像을 주축케 하고 있으며, 口傳的인 명칭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新羅時代의 섬세한 新羅佛像이나 高麗初期의 佛像의 樣式에서도 벗어나 있음을 볼 수 있다. 몸의 同體化된 것이나 諺面의 간략성 등은 高麗 後期의 佛像의 土俗的으로 變貌하는 과정중의 樣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흡사한 성격, 형태를 한 石佛이 全羅北道 益山郡 金馬面에 있는데 대략 14세기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sup>164)</sup> 머리에 씌워진 대패랭이와 비슷하게 만드러진 것은 朝鮮時代 後期나 末期의 것으로 보인다. 이는 石佛이 만드러진 후에 다시 만들어서 씌운 것으로 보이며,<sup>165)</sup> 원래의 것은 넓적한 사각형태에 가운데가 둥그스름한 원형이 있는 형태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2. 萬壽寺 石佛立像

앞의 海輪寺址 石佛立像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써 海輪寺址의 石

164) 寶物 46號, 益山古都里石佛立像.

165) 忠南夫餘郡에 있는 定林寺址石佛坐像(寶物 108號)에도 이와 흡사한 것이 씌워져 있는데 이것도 後代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佛과 같은 時期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쪽을 향해서 海輪寺 石佛立像과 마주 보듯이 하고 있는데 이는, 濟州牧을 보호하는 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 3. 海輪寺 童子佛

海輪寺 石佛立像 옆에 있는 조그만 佛像으로 磨耗가 심하여 형태를 알아 보기 힘들다.

## IV. 佛塔과 浮都

### 1. 石塔

濟州島 內에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元堂寺址의 五層石塔이다. 이 石塔은 원래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元堂寺址 伽藍의 배치 상황을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元堂寺 오층석탑의 재질은 제주도산 다공질 玄武岩으로 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내륙지방에서 제작된 花崗岩 石塔들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基壇部는 2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단부가 흠속에 묻어져 확인할 수 없다. 上層基壇 中石 三面에는 장방형으로 周緣를 두르고 眼象무늬를 1개씩 넣고 있다. 이러한 眼象무늬는 統一新羅時代의 '梵魚寺三層石塔',<sup>166)</sup> '寧國寺三層石塔',<sup>167)</sup>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sup>168)</sup> 그러나 元堂寺址의 五層石塔처럼 무늬가 뚜렷하지는 못하다. 고려시대의 것으로 '정도사지五層石塔'<sup>169)</sup>이 있는데 여기에도 眼象무늬가 있어서 문양상으로는 틀리나 文樣帶는 비슷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1층 屋身에는 남쪽으로 方形의 창이 裝飾되어 있는데 舍利孔 일 가능성이 많다. '安城竹山里五層石塔'<sup>170)</sup>에도 이와 흡사한 형식이 나타나

166) 釜山 靑龍洞 所在.

167) 忠北 永同郡 陽山面 所在.

168) 漆谷箕城洞三層石塔(慶北 漆谷郡 所在).  
述亭里西三層石塔(慶南 昌寧郡 所在).

169) 慶北 漆谷郡 所在, 高麗時代(1031).

170) 京畿道 安城郡 二竹面 所在.

고 있다. 5층까지의 屋身은 모두 위쪽으로 가면서 폭이 좁아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의 屋身만 더욱 심하게 좁아져 있어서 특이한 양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되어야할 課題이다. 각 층의 屋身은 층급이 없는 간략한 형식을 하고 있는데 네 귀퉁이의 처마끝을 살짝올려 둔탁함을 없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1층의 基壇위에 5층 塔身部가 오층으로 되어 있는 石塔으로 屋身과 屋蓋는 모두 單一石으로 되어 있다. 相輪部에는 근대중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覆髮·寶蓋가 올려져 있다. 원래의 것은 相輪部에 鐵製 擦柱가 있었고, 둥그스름한 寶珠 또는 龍車가 있었다. 이는 1988년 地表調査때에 직경 92mm, 높이 90mm, 구멍직경 27mm 정도의 것이 발견된 바 있다.<sup>171)</sup> 그런데 이 石製 遺物의 구멍에는 철에 썩아 있었던 흔적(쇠녹물)이 있다. 또한, 石塔과는 7-8m 지점에서 收拾된 점으로 보아 推定된다.

## 2. 尊者庵 石鐘型浮都

尊者庵址에 있는 石鐘形浮都는 1080년대초까지만 하여도 굴러 넘어져 있던 것을 1980년대 말에 누군가에 의하여 세워 놓았으나, 원래의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재질은 제주산 다공질 玄武岩으로 되어 있다.浮都는 크게 네 개로 구분할 수 있다.基壇部 下石은 여러개의 돌로써 六角으로 만들었고 그 위에 원통형으로 된 基壇部 中石이 있는데 가운데에는 突出된 周緣을 둔 舍利孔이 있다. 그 위로 마치종과 흡사한 형태로 만들어진 塔身이 있고, 위에는 대패랭이와 흡사한 形態의 屋蓋가 있다.

규격은 基壇部 下石너비 150cm, 높이 18cm, 基壇部 中石지름 83cm, 높이 28cm, 舍利孔外너비 28.9cm, 舍利孔內너비 18cm, 길이13cm, 塔身지름 80cm, 塔身높이 약 90cm, 屋蓋지름 73cm로 총 높이 약 180cm에 이르는 큰 石鐘型浮都이다.<sup>172)</sup>

이러한 형태의 浮都는 高麗末期에서 朝鮮初期에 유행하던 것으로 보이나 濟

171) 4)의 글, p.51.

172) 28)의 글, 寫眞, 圖面, pp.83-85.

## 濟州島의 佛跡

州島의 것과는 다소 樣相의 차이를 두고 있어서 尊者庵이 創建된 후에 高僧의 舍利를 모셨기 위하여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 3. 濟州大學校博物館 收藏 屋蓋

앞의 것과 흡사한 樣相을 한 屋蓋로써 재질이나 크기 모양이 흡사하다. 北濟州郡 한림읍에서 나왔다고 전하고 있으나 불분명하고 확인할 길이 없다.<sup>173)</sup>

### 4. 泰山寺址 石鼓

寺址라고 유추되는 지점의 동측 階段의 下段部 양쪽에 1기씩 2기가 놓여져 있는데, 제주산 다공질 玄武岩으로 제작되어 있다.<sup>174)</sup> 어떠한 용도로써 만들어지고 세웠는지는 알길이 없으나, 원래는 寺刹의 階段이나 진입로 근처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V. 器 皿

濟州島의 寺刹의 器皿들은 크게 질그릇, 高麗靑자, 粉靑沙器, 白磁, 銅器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器皿들은 寺刹의 精確한 編年을 類推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으며, 島入된 由來까지 짐작할 수 있고, 規模나 性格을 推定하는데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 1. 高麗靑瓷

濟州島에서의 高麗靑瓷의 출토양상은 우리나라 內陸地方과 다를 바 없다. 다만, 陶窯(청자·분청·백자)가 없고, 그 양이 많지 않아서 조사나 연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佛跡의 陶磁器들도 濟州島의으로 알아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일단, 出土地가 精確한 陶磁器片으로 우리나라 內陸地方과 編年과 關係를 알아 보기로 하겠다.

島內的 佛跡 중에서 高麗靑자가 출토된 곳으로는 法華寺址, 水精寺址, 元堂

173) 骨董品商에서 收入된 것임.

174) 113)의 글, 寫眞, p.98.

寺址, 尊者庵址, 妙蓮寺址, 郭支寺址, 日果里寺址, 高内里寺址, 등으로 다 수에 이르고 있으며, 器皿의 종류로는 梅瓶, 瓶, 沙鉢, 대접, 접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法華寺址에서 佛器로 보이는 조각이 발견된 바 있다.

1) 法華寺址 高麗靑磁; 1987년 조사시에 純靑磁片이 金堂址 서쪽 20m쯤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sup>175)</sup> 釉藥은 비색으로 발색이 좋으며, 미세한 균열을 동반하고 있고, 굽안까지 施釉되고 있다. 받침은 차돌눈 2개의 흔적이 있다. 이러한 靑磁는 澗松美術館의 청자오리형연적이나 國立中央博物館의 靑磁牡丹唐草紋완을 비롯하여 호암미술관의 靑磁寶象花唐草紋瓶의 釉藥의 상태와 흡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들은 高麗 12세기초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들이다. 이외에 黑白象嵌靑磁 文樣으로 雲紋, 鶴紋, 牡丹紋이 있는데,<sup>176)</sup> 이러한 樣相의 文樣들은 12-13세기 高麗靑磁에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透刻靑磁片이 나타났는데, 이는 12세기로 보아 타당할 듯 싶은 것이다.

2) 高内里寺址 高麗靑磁; 靑磁黑白象嵌片과 靑磁底部片이 있는데 前者의 것은 작은 조각이어서 그릇의 형태는 알 수 없으나 그릇의 안면에 釉藥이 施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병으로 보인다. 회색의 胎土는 水飛가 양호하여 잔氣孔이나 龜列이 없고, 釉藥은 진한 비취색으로 두텁게 施釉되었다. 白土와 赤土로 된 象嵌의 문양은 알 수 없으나 처리함이 능숙하여 高麗 12-13세기 초의 것으로 보인다.<sup>177)</sup> 後者의 것은 연회색의 胎土에 비취색을 띠고 있는 잔형적인 高麗靑磁片이다. 형태로 보아 작은 접시류였던 것으로 보인다. 釉藥은 그릇의 内外부에 골고루 施釉되어 있으며, 아주 희미한 龜列을 동반하고 있다. 들린굽을 하고 있고 모래받침을 하고 있다. 대략 13세기에 사용된 것으로 類推된다. 이외에 靑磁접시편이 있는데 굽이 낮고 器銘의 곡선으로 보아 접시 조각임이 확실하다. 釉藥은 얇고 골고루 施釉되고 있는데 잔 龜列이 있다. 胎土는 水飛가 양호하여 氣孔이나 龜列은 보이지 않는다. 받침으로 굽내부에는 비좁은 흔적이 있고 외부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있는 점이 특이하다.<sup>178)</sup> 대략

175) 《法華寺址簡略調查報告書》, 제주대학교박물관, 1987, p.33.

176) 2)의 글, 寫眞, 66,71, p.97.

177) 118)의 글, 寫眞, p.96.

178) 118)의 글, 寫眞, p.96.

14세기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3) 光令里寺址-2 高麗靑磁; 모두 조그만 파편으로 형태나 文樣의 상태를 파악하기는 힘드나 黑白象嵌靑磁片과 靑磁片이 있다.<sup>179)</sup>

4) 普門寺址 高麗靑磁; 靑磁瓜形瓶片과 靑磁黑白象嵌片이 있다. 前者의 것은 연회색 胎土를 하고 있다. 水飛는 비교적 잘 되어 있다. 釉藥은 비색을 하고 있는데 균列이나 기포현상이 없다.<sup>180)</sup> 後者는 안면에 釉藥이 施釉되어 있지 않고 器壁이 울퉁불퉁한 것으로 보아 병편임을 알 수 있다. 胎土는 연회색을 하고 있는데 거칠게 水飛되었고 세밀한 기공이 있다.<sup>181)</sup> 이러한 종류들은 高麗 12세기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오조리사지-2 高麗靑磁; 종류상으로 陰刻靑磁, 白象嵌靑磁, 黑白象嵌靑磁, 純靑磁가 있다.<sup>182)</sup> 陰刻靑磁는 진한 비취색을 하고 있고 모래받침 흔적이 있다. 白象嵌片은 중간부위에 2개의 있고 이와 엇갈리는 선들이 있다. 형태는 馬像杯片로 보인다. 黑白象嵌靑磁는 제器로 보인다. 상단부에는 雷紋이 있고, 하단부에는 菊花紋이 있다. 이외에도 純靑磁 사발편과 梅瓶片이 있는데 모두 비색을 하고 있고 모래받침을 하고 있다. 高麗 12-13세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6) 浙川庵址 高麗靑磁; 靑磁菊花紋黑白象嵌으로 연회색이 엷게 비치는 비색을 하고 있으며, 내외면으로 象嵌이 되어 있어서 그릇편임을 알 수 있다. 菊花紋은 2개의 白象嵌片으로 둘러진 중앙에 있는데 黑白象嵌으로 잎을 처리하였다. 釉藥은 균列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sup>183)</sup> 이는 高麗 12세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시기의 것으로 靑磁黑白象嵌사발片이 있다. 器壁이 유난히 얇고 진한 비취색을 하고 있다. 黑白象嵌으로 雷紋, 雲紋, 唐草紋이 있다. 입술 바로 밑에서의 外壁은 白象嵌으로 雷紋을 하였고 밑으로 唐草紋을 黑白象嵌으로 하였다. 内壁는 입술밑으로 黑白象嵌으로 雷紋을 하였고 그 밑

179) 110)의 글, 寫眞, 16,17, p.85.

180) 43)의 글, 寫眞 8의 2번, p.85.

181) 43)의 글, 寫眞 8의 1번, p.85.

182) 138)의 글, 寫眞 8,9번, p.110.

183) 55)의 글, 寫眞 4의 1번, p.86.

으로 雲紋을 넣고 있다. 釉藥은 골고루 施釉되고 있고 氣泡현상이 없다.<sup>184)</sup> 이외에 靑磁黑白象嵌蓮花紋梅瓶片이 있는데, 平底를 하고 있고 모래 받침을 하고 있다. 器壁은 外反되는 형태 즉, 梅瓶의 전통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동체부 하단에 變形蓮花紋이 白象嵌되어 있다.<sup>185)</sup> 이는 13-14세기의 것으로 보인다.

7) 郭支寺址 高麗靑磁; 瓶片이나 사발片들이 나타나고 있고 黑白象嵌을 비롯하여 여러종류의 靑磁들이 발견되고 있다.<sup>186)</sup>

8) 日果里寺址 高麗靑磁; 절터를 중심으로 한 경작지에서 收拾되고 있다. 종류로는 陰刻靑磁, 黑白象嵌靑磁, 白象嵌靑磁가 있다.<sup>187)</sup> 陰刻靑磁인 경우 器壁이 10mm내외로 두터운 편이며 釉藥은 비색을 하고 있다. 黑白象嵌은 파도 같은 문양을 하고 있다. 唐草紋과 草紋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鶴紋도 발견되고 있다. 鶴紋은 高麗時代 12-13세기에 즐겨 사용된 것이다.

9) 尊者庵址 高麗靑磁; 靑磁黑白象嵌蓮花紋瓶片이 발견된 바 있다. 진한 비취색을 하고 있다. 그릇의 안쪽에 釉藥이 施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瓶片임을 알 수 있다. 조그만 破片이어서 문양이 상태는 확실하지 못 하나 蓮花紋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88)</sup>

## 2. 粉靑沙器

島内の 寺址 대부분에서 다량으로 出土되고 있는 도자기이다. 象嵌粉靑, 印花粉靑, 귀얄粉靑, 덩병粉靑으로 粉靑沙器의 종류들이 모두 나타나고 있고 문양의 종류도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印花菊紋片이 普門寺址,<sup>189)</sup> 逝川庵址,<sup>190)</sup> 泰山寺址,<sup>191)</sup> 日果里寺址,<sup>192)</sup> 尊者庵址<sup>193)</sup>에서 출토된 바 있고, 印花圓紋片과

184) 55)의 글, 寫眞 4의 2번, p.86.

185) 55)의 글, 寫眞 5번, p.86.

186) 88)의 글, 寫眞, pp.58-59.

187) 22)의 글.

188) 28)의 글, 寫眞, p.86.

189) 43)의 글, 寫眞, 7, p.85.

190) 55)의 글, pp.85-86.

191) 113)의 글, 寫眞, 2,6,7,10, p.95.

192) 22)의 글, 寫眞, p.97.

193) 28)의 글, 寫眞, p.86.

白象嵌變形蓮花紋片이 光令里寺址-2,<sup>194)</sup> 郭支寺址<sup>195)</sup>에서 나타났다. 印花兩點紋片이 오조리사지-2,<sup>196)</sup> 浙川庵址<sup>197)</sup>에서 알려진 일이 있다.<sup>198)</sup> 귀얄문편으로 泰山寺址,<sup>199)</sup> 日果里寺址<sup>200)</sup>에서 收拾되었다. 이외, 덩빙문편으로 오조리사지-1<sup>201)</sup>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粉靑沙器들은 우리나라 內陸地方에서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는, 島內에는 粉靑沙器를 만들수 있는 胎土가 없을 뿐만아니라 아직까지 粉靑가마의 흔적이 전혀 발견이 안되고 있고, 대부분이 형태나 文樣들이 우리나라 內陸地方의 것들과 흡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內陸地方의 것과 編年을 같이 한다면, 朝鮮初期에서 中期 사이에 사용된 것으로 대략 15-16세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타당할 듯 싶다.

### 3. 白磁

島內 佛跡들에서 출토되는 白磁는 朝鮮時代 16-19세기까지의 것으로 多樣하다. 그러나 資料들을 收集, 정리함이 未備되어 다음 기회로 미루지 않을 수 없다.

### 4. 질그릇

질그릇과편들이 散布되어 있는 곳은 郭支寺址, 高內里寺址, 吾照里寺址-1, 吾照里寺址-2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郭支寺址나 高內里寺址는 統一新羅時代에서 高麗時代의 것으로 보이는 질그릇 조각들이 다량으로 出土되고 있으나, 貝塚遺蹟과 함께 형성되어 있는 까닭으로 發掘調査나 精密地表調査를 통하여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寺刹의 성격으로 보아서 高麗時代의 질그릇들은 寺址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思料된다.

194) 110)의 글, 寫眞, 14, 17, 18, 19, p. 85.

195) 88)의 글, 寫眞, 15, p. 59.

196) 138)의 글, 寫眞, 10, p. 110.

197) 55)의 글.

198) 138)의 글, 寫眞 10번, p. 110.

199) 113)의 글, 寫眞, 11, p. 95.

200) 22)의 글, 寫眞, p. 97.

201) 137)의 글, 寫眞, 14, p. 104.

高麗時代의 질그릇들은 입술부위가 넓은 이른바,廣口瓶 형태의 것들이 郭支寺址,<sup>202)</sup> 高內里寺址,<sup>203)</sup> 吾照里寺址-2,<sup>204)</sup> 普門寺址<sup>205)</sup>에서 收拾된 일이 있는데 이는, 紀元後 12-13세기 정도로 推定된다.

또한, 表面에는 打捺무늬가 있고 裏面에는 아무런 文樣이 없는 질그릇 조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樣相을 한 것들은 高麗時代에서 朝鮮時代 初期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이외에도 表面에 打捺무늬가 있다던지, 文樣이 없다던지 한 상태에서 裏面에 둥그스름한 문양이나 사각형문, 단선문 등 여러가지 형태의 문양들이 있는 질그릇 파편들이 郭支寺址,<sup>206)</sup> 光令里寺址-1,<sup>207)</sup> 吾照里寺址-1,<sup>208)</sup> 吾照里寺址-2,<sup>209)</sup> 등에 散布되어 있는바, 이는 朝鮮時代 중기에서 말기까지의 질그릇의 樣相으로 보인다.

### 5. 銅器

水精寺址에서 出土된 작은 釜 2점과<sup>210)</sup> 法華寺址에서 出土된 손가락 1점이 있다.<sup>211)</sup> 이들은 모두 靑銅으로 製作되어 있는데 水精寺址의 釜 2점은 鑄造로써 형태를 갖추고 난 다음 깎아서 마무리된 것으로 高麗時代 後期에서 朝鮮初期의 것으로 보이며, 法華寺址의 손가락은 머리부분이 타원형을 하고 있고 손잡이 끝부분에 넘직한 원형 모양의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손잡이가 약간 휘어져만 있어서 統一新羅時代의 형태를 이어받은 高麗時代의 것으로 보이며, 鑄造를 한 靑銅을 때려서 만든 鍛造品일 가능성이 많다.

202) 88)의 글, 寫眞, 15, p.59.

203) 118)의 글, 寫眞, p.95.

204) 138)의 글, 寫眞, 12, p.104.

205) 43)의 글,

206) 88)의 글, 寫眞, 11, p.58.

207) 110)의 글.

208) 137)의 글, 寫眞, 12, p.104.

209) 138)의 글.

210) 4)의 글.

211) 濟州大學校博物館, 《法華寺推定蓮池簡略報告》, 1991.

## VI. 기 와

기와는 建築物의 지붕의 덮게로써 빗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 집으로써 구실을 하게 하고 물이나 습기로 인한 内部의 부식을 막고, 架構를 보호하여 수명을 연장시키는 용도를 지녔다. 이외에도 建築物의 상단부에서 크게는 지붕의 형태를 이루고 작게는 암키와 수키와로서 陰과 陽의 조화를 갖게 된다. 이러한 美를 加味한 기와는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시대에 따라 약간씩 변화되면서 사용되어 왔다. 특히, 保温과 冷房에 큰 도움을 주고 반영구적인 것으로써 예로부터 최고의 建築資材로 꼽아 왔었다

濟州島의 기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혀 이뤄지고 있지 못 하였다. 기와의 기초적인 조사가 안된 탓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內陸地方과도 다소 틀린 경향이 있기 때문임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단기간에 濟州島의 기와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일은 무척 힘든 일이라 생각되며, 자칫 잘못하다간 混沔마저 우려되어서 일단 조사가 된 것부터 정리하는 입장에서 암막새와 수막새를 考察하여 보려고 하며, 평와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 1. 암막새

濟州島에서 出土된 암막새들은 鬼面, 龍紋, 斜線紋, 日輝紋, 螺線紋, 蓮花紋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寺址나 지역적으로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수막새와 달리 같은 系列의 文樣들도 發見되고 있다. 또한, 龍紋 암막새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바가 없어서 아직까지 曖昧模糊한 상태에서 여러가지 學說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朝鮮時代까지만 하더라도 建築에서 높이나 기둥 모양이 용도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당시의 龍紋이라는 것은 王과의 關係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일단은 濟州島內의 寺址의 암막새들의 種類와 特徵을 알아 보려고 한다.

1) 水精寺 日輝紋암막새: 破片으로 전체의 형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流線

型 蓮瓣과 日輝紋이 混用되어 配置되고 있으며, 암막새와 내림새가 직각으로 붙혀지고 틈새를 粘土로 발라 마무리 되고 있어서 전형적인 高麗時代의 암막새로 볼 수 있다고 判斷된다. 내림새 두께 25mm, 높이 65mm 내외이다.<sup>212)</sup>

2) 水精寺 蓮瓣紋암막새; 내림새의 文樣은 蓮花紋과 蓮子紋이 混用되어 配置되고 있다. 流線型의 蓮瓣을 위 아래로 길게 늘어 놓고 있고 그 사이에 蓮子 1개씩을 넣고 있다. 높이 98mm, 두께 33mm 내외이며, 암키와의 마구리에 직각으로 붙혀던 흔적이 있다.<sup>213)</sup>

3) 水精寺 斜線紋암막새; 내림새 文樣이 빗금무늬로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다. 周緣은 斜線紋 보다 한 단계 높혀 形成되었으며 無紋인 것으로 보인다. 胎土는 거친 모래가 혼합된 粘土이다. 내림새 높이 107mm, 두께 28mm 내외이다.<sup>214)</sup>

4) 元堂寺 日輝紋암막새; 내림새의 중앙부에 認冬紋이 x표로 역어져 있고 兩邊에는 日輝紋 2개가 있다. 암키와의와 내림새의 接合部는 각각 45도 정도 따내고 直角으로 접합시키고 있다. 내림새 높이 60mm, 두께 16mm 정도이다.<sup>215)</sup> 이와 비슷한 것으로 水精寺 日輝紋암막새가 있는데 文樣帶에서는 틀린 점이 많으나 같은 時期일 것으로 보인다.

5) 元堂寺 蓮花紋암막새; 내림새 가운데에 蓮花峰으로 보이는 타圓을 넣고 양쪽으로 3개씩 蓮瓣을 配置시키고 있다. 周緣에는 상하로 陽刻線이 있고 蓮子를 配置시키고 있다. 내림새 裏面에 그대로 암키와를 直角으로 접합시키고 있다.<sup>216)</sup>

6) 元堂寺 螺線紋암막새; 내림새 中央部에 4개의 陽刻線을 위 아래로 길게 놓고 좌우로 螺線紋樣을 配置시키고 있다. 周緣은 얇고 많은 蓮子들을 配置시키고 있다. 내림새 높이 72mm, 두께 22mm 내외이다.<sup>217)</sup>

7) 法華寺 龍紋암막새; 1983년 發掘 조사시에 出土된 것으로 내림새 모양은

212) 4)의 글, 圖面 18, p.57.

213) 4)의 글, 圖面 17, p.57.

214) 4)의 글, 寫眞 27, p.90.

215) 4)의 글, 圖面 13, p.73.

216) 4)의 글, 寫眞 21,22,23,24,25, pp.113-114.

217) 4)의 글, 圖面 13,15,16,17, pp.73-74.

초승달과 흡사하나 양쪽으로 두개의 들입턱을 두웠고 가운데 부분은 뾰족하게 突出시키고 있다. 周緣은 비교적 넓게 하고 기와의 가장자리 曲線을 따라 陰刻線을 두고 있다. 가운데의 文樣帶에는 龍 한 마리가 웅틀림하고 있고 주위에는 구름이 描寫되고 있다. 이러한 文樣들은 陽刻으로 나타내고 있다. 胎土는 세밀하게 水飛되고 있다.<sup>218)</sup> 이는 鳳凰紋 수막새와 함께 出土된 것인데 당시 報告書에는 '寺刹 경영에 힘을 기울렸고, 中國의 기와일 가능성과 王室과 관계는 갖는 점에도 否認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발견이 없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8) 法華寺 蓮花紋암막새; 破片으로 전체의 文樣이나 형태를 推定하기는 곤란하나 활짝 핀 蓮花紋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類推되며 혹, 鬼面암막새일 수도 있을 것 같다.<sup>219)</sup>

9) 法華寺 蓮花紋암막새; 조각으로 내림새는 작고 편평하며, 상하단으로 전체에 비해 굵은 蓮子을 配置시키고 있고, 활짝 핀 蓮花紋을 陽刻으로 그린 듯이 넣고 있다. 島内の 다른 蓮花紋암막새들은 文樣을 내림새 前面에 1개로 表現하고 있는데 비해 이 암막새는 陽刻된 작은 蓮花를 계속하여 配置하고 있는 것이 獨特하다.<sup>220)</sup>

10) 郭支寺 鬼面암막새; 속경, '절왓'에서 收集되었다. 암키와와 내림새는 직각으로 되어 있다. 내림새에는 부릅뜬 눈 2개가 예리하게 나 있고 양쪽에는 3개의 굵은털이 휘날리 듯이 표현되었다.<sup>221)</sup>

11) 海輪寺 蓮花紋암막새; 中央에 둥그스름한 蓮花瓣 1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중심으로 하여 양쪽으로 蓮花葉 3개씩을 配置시킨 것 같다. 周蓮은 磨耗가 심하여서 痕迹만 알 수 있을 뿐이다. 胎土는 세밀한 노래가 混合되어 있다. 내림새의 두께는 22cm이고 암키와 두께 역시 22cm정도이다. 이음새는 내림새를 직각으로 파내고 암키와를 직각으로 붙힌 다음 粘土로 발라 마무리 하였다. 色調는 적갈색과 회색을 하고 있다.<sup>222)</sup> 이와 흡사한 것이 元堂寺

218) 2)의 글, 寫眞 58, p.95.

219) 2)의 글, 寫眞 63, p.96.

220) 2)의 글, 寫眞 64, p.96.

221) 88)의 글, 寫眞 5, p.55.

222) 48)의 글, 寫眞 10,11, p.67.

址와 吾照里寺址-1을 비롯하여 吾照里寺址-2에서 出土되고 있어서 같은 時期의 寺刹이었음을 暗示하여 주고 있다.

12) 吾照里寺址-2 蓮花紋암막새편; 내림새 蓮瓣에는 蓮葉이 있고 上段에는 2개의 陽刻線을 넣어 그 사이에 蓮子를 配置시키는 周緣을 하고 있다.<sup>223)</sup> 下段은 上段에 비하여 線紋이 없고 蓮子만을 두고 있다. 내림새는 직각이며, 두께는 22mm정도에 높이 75mm내외이다. 두께 22mm의 암키와의 마구리에 내림새를 그대로 붙혀 있고 직각면에는 粘土를 발라 마무리하고 있다. 胎土는 잘 水飛되고 있으나 간혹 龜裂이 있고 연회색을 하고 있다. 吾照里寺址-1과 海輪寺址 및 元堂寺址에서 비슷한 암막새가 나타난 바 있다.

13) 吾照里寺址-1, 蓮花紋암막새; 내림새 文樣의 磨耗가 심하여 전체의 文樣을 알 수가 없으나, 周緣에 蓮子가 있었던 痕迹과 문양의 종류가 蓮花紋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암키와 두께는 25mm내외이며, 내림새 높이는 72mm정도인 것 같다. 내림새는 암키와 마구리에 그대로 직각으로 붙히고 있으며 직각으로 난 틈은 粘土를 붙혀 보강하고 있다. 胎土에는 굵고 거친 모래를 補強劑로 混合하고 있는데 氣孔과 龜裂이 드물다. 연한 갈색과 연한회색이 혼합된 色調를 띄고 있다.<sup>224)</sup> 이와 흡사한 樣相을 한 암막새가 海輪寺址, 元堂寺址, 吾照里寺址-2에서 出土된 일이 있다.

14) 妙蓮寺 唐草紋암막새; 破片이어서 전체의 文樣은 알 수 없으나 내림새의 형태는 半圓形態를 하고 있으며, 周緣의 깊이나 文樣의 깊이가 흡사한 것이다. 文樣은 唐草紋으로 넝쿨이 내림새의 가장자리를 따라 둘러져 있고 그 안으로 하여 다른 文樣을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文樣은 陽刻으로 되어 있고, 내림새와 암키와는 직각으로 되어 있다.<sup>225)</sup> 보편적으로 문양이 세밀하고 이음새가 직각인 것으로 보아 統一新羅의 암막새를 이어 받은 高麗時代 중기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15) 妙蓮寺 蓮花紋암막새; 앞에서 설명한 水精寺址의 蓮花紋암막새와 아주

223) 138)의 글, 寫眞 2번, p.109.

224) 137)의 글, 寫眞 5, p.102.

225) 妙蓮寺(大覺寺)에 保管 중임.

흡사한 것으로 妙蓮寺가 水精寺와 밀접한 關係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sup>226)</sup>

16) 妙蓮寺 螺線紋암막새; 文樣帶 磨耗가 심하여 잘 알 수 없으나 내림새는 半圓型인데 높이가 암키와의 曲線을 따라 均一하게 돌아가고 있고, 文樣帶는 편편하나 螺線紋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227)</sup> 확실하진 않지만 周緣이 有無만 차이가 있을 뿐, 元堂寺址의 螺線紋암막새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진다.

濟州島內의 寺址 암막새들은 蓮花紋암막새가 主流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海輪寺址, 吾照里寺址-1, 吾照里寺址-2, 元堂寺址에서 文樣이나 형태가 비슷한 모양의 蓮花紋암막새가 出土되어서 이 寺址들이 創建時期, 建築樣式, 寺刹性格 등이 같았을 것으로 推測된다. 郭支寺址의 鬼面암막새와 水精寺址나 元堂寺址에서 나타난 日輝紋암막새는 文樣이나 내림새의 형태로 보아 高麗中期에서 末期의 것으로 보인다. 龍紋암막새가 出土된 法華寺址의 경우 아직 정확한 編年을 갖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전혀 발견이 안되고 있고, 예로부터 龍은 그 나라의 王을 象徵하기 때문에 寺刹의 건물이라 하여도 사용은 不可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龍紋이 세밀하고, 周緣의 넓고 깊은 점, 胎土에 세밀한 모래를 補強劑로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統一新羅時代의 樣相을 하는 쪽으로 봄이 가장 妥當할 듯 싶다. 螺線紋암막새 및 斜線紋암막새는 製作은 高麗時代의 方式을 채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文樣은 高麗時代에서 脫皮되고 있어서 朝鮮初期의 기와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妙蓮寺址와 元堂寺址의 螺線紋암막새는 흡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相互關係가 있었던 것으로 思料된다.

## 2. 수막새

濟州島 寺址의 수막새는 小數에 불과하다. 이는 아직 調査가 원활히 안된 점도 있겠고 寺址들이 훼손도 심하다는 점도 배재할 수 없다. 그나마 調査할 수 있을 정도의 수막새가 있다는 것도 소중한 일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수막새는 암막새와 더불어 寺刹의 創建, 編年, 性格을 究明하는 데 중요하다. 아직까지 발견된 것들은 法華寺址에서 2점, 水精寺址에서 1점, 元堂寺址

226) 大覺寺(光令里)에 保管 중임.

227) 大覺寺 收藏.

에서 2점, 吾照里寺址-1에서 1점, 妙蓮寺址에서 1점, 光舍里寺址-1에서 1점 모두 8점 정도이다.

1) 法華寺 鳳紋수막새; 1983년 發掘調査 때 出土된 것이다. 넓은 周緣에 陰刻線이 둘러져 있다. 가운데에 雲紋과 鳳紋이 陽刻으로 되어 있다.<sup>228)</sup> 앞에서 밝힌 法華寺의 龍紋암막새와 같은 性格을 지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암막새에는 龍을 넣고 이 수막새에는 鳳凰을 넣은 것은 陰陽說에 의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文樣을 한 破片이 1986년 金堂址 調査에서도 出土된 일이 있다.

2) 元堂寺 八葉蓮花紋수막새; 半球型 子房을 중심으로 流線型 花瓣 8개가 配置된 것으로 間瓣은 마름모형으로 流線型 花瓣과는 區分되어 있다. 中房과 文樣圈은 굵은 陰刻線으로 區分되었다. 子房은 한단 높으며, 周緣에는 陰刻線이 있다. 직경은 140mm, 두께는 22mm 정도이다.<sup>229)</sup>

3) 元堂寺 十四葉蓮花紋수막새; 花瓣의 폭은 좁고 길며, 周緣과 花瓣의 높이가 같다. 破片으로 확실하진 않지만 가운데에 子房을 뒀을 것으로 推定된다. 직경 120mm, 두께 18mm내외이다.<sup>230)</sup> 이와 흡사한 것이 地表調査시에 發見된 바 있는데 문양대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작아 樣相을 알기에는 미흡하지만 수막새가 붙혀있어서, 내림새와는 직각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4) 水精寺 六葉蓮花紋수막새; 半球型 子房을 중심으로 蓮花를 表現한 蓮瓣 6개가 配置되어 있다. 間瓣은 앞의 蓮瓣 사이마다 넣어졌는데 蓮花葉으로 되어 있다. 中房과 子房은 陽刻線으로 區劃되어 있고 子房은 한단 높다. 周緣은 2개의 線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蓮子들이 配置되었다. 직경 190mm, 두께 40mm내외이고 胎土는 고운모래가 混合된 粘土이다.<sup>231)</sup>

5) 吾照里寺址-1 十二葉蓮花紋수막새; 子房 지름 62mm의 陽刻線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25mm의 蓮子が 있다. 子房과 周緣 사이는 49mm가 되는데 12개의 蓮花葉을 분할 配置하고 있다. 子葉은 없으며 周緣 가까이 蓮子 12개

228) 2)의 글, 寫眞 59, 60, 61, p. 96.

229) 4)의 글, 圖面 11, p. 73.

230) 4)의 글, 圖面 12, p. 73.

231) 4)의 글, 圖面 16, p. 56.

를 넣고 있다. 직경은 182mm정도이다.<sup>232)</sup> 수키와와 내림새는 앞에서 밝힌 암막새가 직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을 것으로 보인다.

6) 妙蓮寺 蓮花紋수막새; 破片으로 전체의 文樣과 형태는 알 수 없다. 가운데에 子房을 두고 間瓣없는 蓮花葉이 있는데 上段으로 蓮子를 넣고 있다. 周緣은 無紋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33)</sup>

濟州島 내의 寺刹 수막새는 같은 形態나 文樣이 흡사한 것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못 하다. 이것은 각 寺刹들이 文樣이 틀렸다거나 같은 時期라도 創建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암막새와는 다른 것으로 중창시에도 다른 곳이 수막새는 사용하지 못하거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時期的으로는 法華寺 鳳紋수막새가 統一新羅時代의 樣相을 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들은 高麗時代 중기에서 말기의 것으로 보인다.

## VII. 佛跡의 編年

法華寺는 統一新羅時代의 樣式을 이어받은 高麗時代 대략 12세기 정도에 創建된 寺刹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基壇部의 형태가 전체적으로는 統一新羅時代의 것이면서 細部的으로는 상당히 떨어지는 단순한 形式을 하고 있는 점에서 나타난다. 또한 礎石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文樣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세밀하게 만들어지고 있음은 일단, 統一新羅時代와는 거리가 있다. 遺物이 出土되는 것으로 보면, 高麗 12세기경의 靑磁들이 나타난 것을 시발로 朝鮮初期의 粉靑沙器들이 出土되고 있고 朝鮮중기의 白磁들을 더불어 말기의 器皿류까지 나타난다. 이로 미뤄서 法華寺의 편년을 볼 때 12세기경에 創建되어 高麗末期나 朝鮮初期 14-16세기에 절정기를 이루다가 17세기경부터 쇠퇴기에 접어들어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高麗에서 島入된 불교이며, 아직까지 발표되던 統一新羅의 불교 이야기나, 元에 의한 創建說을 뒷받침할만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러나 암막새나 수막새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연구하여 究明해야할

232) 137)의 글, 寫眞 4, p.102.

233) 光令里 大覺寺(妙蓮寺址)에 保管 중임.

과제이다.

元堂寺는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遺構의 흔적이나 성격이 확실하지 못하다. 다만, 1988년 지표조사 때에 五層石塔으로 伽藍의 형태가 고증되었을 뿐이다. 이 사찰도 元에서 創建하였다고 전하여지나,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의 성격으로 볼 때에 高麗 12-13세기에 創建되어 朝鮮時代 초기에 절정기를 이뤘고 17세기경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消滅된 것으로 보인다.

水精寺는 1988년 元堂寺와 함께 지표조사 된 적이 있는 寺刹로 高麗 13-14세기 경에 창건되어 朝鮮初期에 절정기를 이루고 있었으며 17세기경부터 쇠퇴한다. 遺構에 따른 礎石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있는데 高麗時代의 것으로 판단된다. 이 寺刹도 元에 의한 創建說이 많은데 이를 뒷받침할만한 유물이 전혀없다.

尊者庵은 遺構의 양상이나 유물의 성격으로 볼 때, 高麗 12세기경에 創建되어 16-17세기 경에 절정기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遺構는 礎石이 거칠고 일정한 형상없이 대략 다듬어 사용한 것을 보면, 朝鮮初期나 中期의 것으로 판단된다.

海輪寺는 高麗時代 末期에서 朝鮮時代 初期에 창건되어 있었던 같다. 이는, '절밭'(寺田)이라고 불리는 寺址가 있는데 이곳에서 高麗磁器나 기와 등 고려시대 中期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는 전에서 類推한 것이다.

呑照里寺址-1, 呑照里寺址-2는 모두 高麗時代 12세기경에 創建되어 15-16세기경에 절정기를 이루고 17세기경부터 쇠퇴기에 접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日果里寺址는 유물이나 礎石들이 水精寺址와 흡사한 것으로 볼 때 高麗時代 12세기경에 創建되어 14-16세기에 절정기를 이루고 17세기 정도에 쇠퇴기에 있다가 18세기까지 유지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水精寺와 더불어 고려시대의 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郭支寺는 고려시대 初期경에 創建되어 조선초기경에 절정기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와나 陶磁器片으로 볼 때 高麗時代의 樣相을 하였던 寺刹로 추정된다.

逝川庵은 고려 11세기경에 創建되어 高麗末期와 朝鮮初期에 절정기를 이루고 17세기경부터 쇠퇴기에 접어들었던 것 같다. 遺物들로 미뤄볼 때 高麗時

代의 樣式을 하고 있었다.

普門寺는 고려후기나 조선초기에 創建되어 17세기경에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小林寺는 統一新羅時代의 것으로 1988년 알려진 바 있는데 1985년 筆者가 조사할 당시에도 統一新羅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이후로 계속 조사하였는데 확인할 수 없었다. 創建은 高麗時代 12세기경에 되었으며, 15-16세기에 절정기를 이루다가 17세기를 전후하여 쇠퇴해진 것으로 보인다.

妙蓮寺는 고려시대 12-13세기에 創建되어 조선초기에 절정기를 이루고 17세기경에 쇠퇴해진 것으로 類推된다.

高内里寺址의 사찰은 고려시대 11세기경에 創建되어 조선초기경에 절정기를 이루고 17세기경에 쇠퇴기에 접어 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島内の 寺址 중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寺刹들을 위주로 하여 알아 보았다. 대략 高麗 12~13세기에 대부분 創建되었고 14~16세기경에 절정기를 이루다가 17세기경에 모든 寺刹들이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는 17세기 초에서 18세기말 사이에 濟州島內에 寺刹들이 모두 없어지고 있음을 立證한다고 하겠다.

## Ⅷ. 結 論

濟州島의 佛跡들은 確認된 곳이 70여군데, 不確實한 곳이 10여군데 정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筆者가 약 8여년간에 걸친 짧은 調查이기 때문에 正確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全體的인 樣相은 高麗佛敎가 島入된 상태에서 濟州島의인 樣式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發見된 礎石이나 기와를 비롯하여 石佛 및 石塔에서 考證된다고 하겠다. 統一新羅, 蒙古(元)의 佛跡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 濟州島 佛跡은 우리나라 內陸地方의 樣式에 맞춰 研究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우선적으로 濟州島의 佛跡들이 調查와 研究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精密地表調查와 發掘調查를 통하여 究明될 것이다.